

마침내 돈쓰기 시작했다

상반기 백화점 매출 회복세… 카드 사용액도 늘어

가전제품 꿈틀… ‘바다소비 지표’ 소주 판매도 증가

불경기로 굳게 닦혔던 소비자들의 지갑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올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회복세로 돌아섰고 주춤하던 신용 카드 사용액도 늘기 시작하는 등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광주지역 백화점들의 매출은 비록 한자릿수 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갔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올 상반기(1~6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올랐다. 신영점과 이마트점은 1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나 올랐다가 2월 -5%, 3월 -1%, 4월 1%로 잠시 주춤했지만 5월 5%, 6월 4%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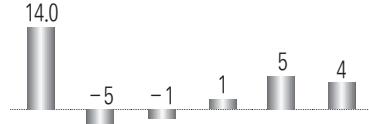
롯데백화점 광주점 매출도 작년 상

반기보다 2% 증가했다. 1월 1%, 2월 -2%, 3월 0.1%, 4월 1%로 초반 실적은 저조했지만 5월 10%, 6월 5%로 회복세가 뚜렷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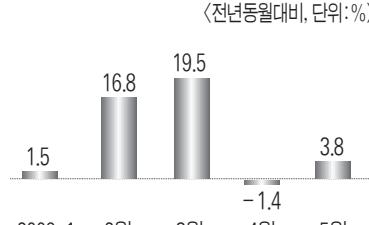
소비 회복의 바로미터인 가전제품 매출이 꿈틀대는 것이 좋은 신호다.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올 상반기 가전 매장 매출은 4월까지 작년보다 -10% 까지 하락했지만 5월 들어 0.7%로 반등한 후 지난달에는 23%나 치솟았다. 냉장고와 세탁기, LCD TV, 에어 컨 등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중고 자동차 판매량은 올 상반기 2만 대(73%)로 지난해 보다 1.2%로 소폭 상승했지만 6월에는 4천 208대가 팔리면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0%가, 전달보다는 20.0%나 늘었다.

■ 광주 신세계 백화점 매출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 광주은행 BC카드 매출 증감추이
<전년동월대비, 단위:%>



바다 소비 지표인 소주 판매량도 살아나고 있다. 보해양조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판매된 소주량은 2천 788만 3천 681ℓ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172만 2천 599ℓ) 증가했다.

신용카드 매출도 늘기 시작해 광주은행 BC카드 매출은 올 1월에는 1.5%로 한 자릿수 성장에 그쳤지만 2월에는 16.8%, 3월은 19.5%로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불경기속에서도 소비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경기침체라는 심리적 압박감이 덜한 젊은층이 소비를 주도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경우 올 상반기 구매 고객들의 연령대를 살펴 보면 20~30대의 매출 구성비가 48.9%로 40~50대(41.4%)보다 쓰임이 커졌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전체 매출액에서 20대가 12.8%, 30대는 32.0%나 차지하면서 주요 고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됐던 소비심리가 되살아나면서 5월부터 소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ju.co.kr

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작년 동월 대비 0.3% 각각 하락했다.

그렇다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해 6월 석유류가 33.8%나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6.0%까지 급등한 ‘기저효과’도 이번 소비자 물가 하락의 이유 중 하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5월과 비교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2.8%, 교양·오락이 0.3%로 각각 하락한 반면 교통은 2.0%, 가구집기·가사용품 0.8%씩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ju.co.kr

노지 채소가 장바구니 시름 덜었네

지난달부터 본격 출하… 농산물값 등 하락 유도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달보다 0.1% 하락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뛰던 농산물 가격이 노지 채소의 본격 출하와 함께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일 지난달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12.5(기

준치 2005년=100)로 전달보다 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도 1.5% 가 상승하는 데 그쳐 2000년 5월(0.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폭은 2월 0.8%로 시작해 3월 0.6%, 4월 0.4%, 5월 0.0%, 5월

0.1%로 꾸준히 줄고 있다.

소비자 물가 하락은 감자(-36.2%), 카드(-35.2%), 배추(-33.8%) 등이 주도했다. 겨울철 시설 채소 면역 감소와 유가 상승 등으로 급등하던 농산물이 노지 채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일제히 떨어진 것이다.

이로인해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

활물가지수도 전월 대비 0.2%, 작년 동월 대비 0.3% 각각 하락했다.

그렇다고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난해 6월 석유류가 33.8%나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가 6.0%까지 급등한 ‘기저효과’도 이번 소비자 물가 하락의 이유 중 하나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5월과 비교해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2.8%, 교양·오락이 0.3%로 각각 하락한 반면 교통은 2.0%, 가구집기·가사용품 0.8%씩 상승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ju.co.kr

光銀 ‘그린경영’ 시동

녹색금융 추진단 구성… 상품 개발 나서

광주은행이 녹색금융 경영 추진 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그린경영’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1일 오전 본점에서 전국 부·실·점장과 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금융 경영 선포 및 혁신’을 갖고 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녹색금융 경영 추진단을 구성했다.(사진)

추진단은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녹색금융 태스크포스팀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역내 녹색 성장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예·대금, 신용카드 등 각종 녹색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광주은행의 녹색금융 경영은 지난 2006년 6월부터 시작한 태양광 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2천 100억원의 실적을 올렸고 올해 출시한 ‘하이그린솔라론’도 벌써 110억원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지원됐다.

이산화탄소량 절감분 만큼 포인



녹색전용 예금상품인 ‘그린스타트 예금’도 지난 5월 25일 판매 이후 한달여 만에 388억원의 수신 실적을 올렸고 올해 출시한 ‘하이그린솔라론’도 벌써 110억원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지원됐다.

트로 환산해 주는 ‘탄소그린카드’ 도 도입 1년여 만에 7천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이산화탄소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ju.co.kr



광주신세계 ‘워터월드’ 개장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이 1일 오후 1층 정문광장에 개장한 어린이들을 위한 ‘워터월드’ 보트와 장난감 낚싯대 등을 갖췄다. 5일까지 문을 열며 오전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는 피해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업자의 80세 이내에서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의 총액보다 적은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령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 수준도 낮아진다. 종전에는 사망보험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많아야 한다. /연합뉴스

실손보험 증복가입 확인 의무화

앞으로 보험회사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의료보험의 증복 가입을 막기 위해 이전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고객이 개인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때 향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예컨대 같은 2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을 때 보험금이 200만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두 보험사가 50만 원씩 나눠 준다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產銀·노무라증권 선정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의 매각 주간사로 산업은행과 노무라증권을 공동 매각주간사(Joint Financial Advisor)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는 앞으로 주간사와 협의해 대우건설의 구체적인 매각 방식과 매각 구조, 일정 등 세부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ju.co.kr

오비맥주 불량품 첫 수거

자사 제품서 젓산균 검출 전량 사들이기로

오비맥주가 자사의 일부 불량 제품에 대한 수거에 나섰다. 지난 1948년 오비맥주가 출시된 뒤 처음이다.

오비맥주는 1일 “오비 블루 1.6ℓ 페트”에서 신맛과 달새가 난다는 소비자 불만이 잇따라 해당 제품의 샘플을 검사해 결과, 젓산균(페디오코커스)이 검출돼 이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진 제품 전량을 수거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이 회사 이천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4월 17일 생산된 제품에서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오비맥주는 이날 생산된 3만 2천 941케이스(1케이스 6병) 가운데 이미 팔린 2만 15천 783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 수거를 추진중이다.

오비맥주는 “이미 소비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97%인 6천

280케이스를 수거했다”고 말했다.

수거는 통상적인 리콜과 달리 직원들이 유통망에 걸린 오비블루 1.6ℓ 를 유상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비맥주 김기화 홍보팀장은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수거를 빨리 하는 방식을 찾다보니 그런 것”이라며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한 뒤 결정하는 리콜보다 직원들을 동원한 유상 구매 방식이 수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또 홈페이지를 통해 ‘이

것은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김치나 막걸리, 와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 병원성 미생물로,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김지미기자 dok2000@kwanju.co.kr

▲ 코스피지수	1,411.66 (+21.59)
▲ 코스닥지수	491.17 (+6.02)
▼ 금리 (국고채 3년)	4.08% (-0.08)
▼ 원·달러 환율	1,267.70원 (-6.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 수원코리아랜드 공인증개사 사무소

062) 951-6800
H.P. 010-3666-8949

수완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팔리스타워빌딩 (분양임대중) 중앙메디컬빌딩

상업용지, 점포, 원룸용지 매매임대

아파트 분양권 매매, 임대

“급”매물접수,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번영 공인증개사

062) 531-4665
동림2지구 동림병원앞

모텔

※수익성 좋은 물건 디랑 확보

▶ 신축모텔(매매, 임대) ◀

매매 10억 ~ 35억 원
(용지안고 3 ~ 20억 원자)